

나주-클레르몽페랑 청소년 ‘한·불 우정’ 잇는다

8박 9일 ‘청소년 캠프’…양 도시 청소년 24명 참가

나주 역사·문화·미래산업 경험…글로벌 교류 확대

지난 1851년 ‘나르발호 사건’ 이후 한·불 수교 1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주에서 만나 역사와 문화를 나누고 우정을 쌓는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시와 함께하는 ‘2026 나주-클레르몽페랑 국제 청소년 여름캠프’가 지난달 27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캠프는 나주시와 클레르몽페랑시가 2025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주에서 처음 열리는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진행된 국제 청소년 캠프의 교류를 이어받아 양 도시 미래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프에는 나주 지역 고등학생 14명과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시 청소년 10명 등 총 24명이 참가한다.

나주 학생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 필기와 면접을 거쳐 선발됐으며 캠프에 앞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운영 일정과 안전관리, 조별 활동 등을 안내했다.

프랑스 학생들은 지난달 27일 나주에 도착해 한국 학생들과 처음 만난 뒤 오리엔테이션과 목재 공예 체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프 일정에 돌입해 금성관과 나주향교, 첫만남센터, 불회사 등을 방문하며 나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박선영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열고 프랑스 청소년들의 나주 방문을 축하했다.



최근 나주-클레르몽페랑 국제 청소년 여름 캠프 환영식에 참석한 학생들과 윤병태 나주시장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환영식에서는 나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나주 학생들의 K-POP 댄스 공연과 클레르몽페랑 학생들의 ‘아리랑’ 합창이 이어지며 국경을 넘어선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 학생들은 캠프 기간 나주시의회와 국립나주박물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남광주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역사·문화 체험을 이어간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견학과 한불 교류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산업을 배우고 협동심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공영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왼쪽 세번째)가 최근 제주시농협 고흥쌀 판촉행사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고흥쌀 증정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공영민 고흥군수, 휴가 중에도 고흥쌀 홍보 매진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판촉행사서 소비 확대 모색

공영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가 휴가 중에도 제주시에서 열린 고흥쌀 판촉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탰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제주도에서 고흥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등 지역 농협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제주시농협 수요장터를 방문해 행사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흥양농협 조성문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판매 직원을 격려했다. 아울러 장터를 찾은 제주도민 등 구매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고흥쌀의 시장성을 점검했다.

제주시농협 수요장터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근 음식점과 외식·급식업체 관계자 등 대량 구매 고객이 많이 찾는 식사재 유통거점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쌀 생산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외부 공급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춘 고흥쌀이 고정 수요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공영민 군수는 서귀포농협을 찾아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통 확대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서귀포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 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식자재 유통업체로 공급처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살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농민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는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지역 농협과 음식점, 식자재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고흥쌀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밥상에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전남농협, 신안 임자서 ‘농촌왕진버스’ 운영

농협전남본부는 최근 임자농협과 함께 신안군 임자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임자농협 조합원과 지역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한방 의료진과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양·한방 진료를 비롯해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지원, 치매 검사, 구강검사·치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쿨링키트와

농업용 모자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했으며,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농촌왕진버스는 바쁜 영농철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서 마련된 농협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은 물론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여성농업인 권익 증진·영농여건 개선 힘써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전남광주 여성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매숙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심문희 전국여성농업인 광전연합회장, 임원진, 황금숙 농가주부모임 광주연합회장과 광주 여성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여성농업인과의 공식 소통 자리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농어민 공익수당 개별 지급, 여름철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관리 강화 등 여성농업인의 권리 신장과 농업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매숙 회장은 “여성농업인은 지역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중요한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여성농업인의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문의 회장은 “여성농민은 오랫동안 보조자로 여겨졌지만, 씨앗을 고르고 밭을 일구는 농업의 중요한 주체”라며 “여성농민이 강해야 농촌이 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전남광주 여성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특별시, 간담회서 권리 신장·개선 사항 논의

농어민 공익수당 개별 지급·농업 여건 개선 등 제시

농촌이 살아야 지역과 국가가 산다.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이 실현돼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은 “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농촌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농업경영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왔다”며 “행정통

합 등 큰 변화 속에 여성농민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395억원을 투입하고 문화생활, 건강 복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비현실적 아름다움’ 글과 사진으로 소개한 여행기

조기선 광주CBS 대표

‘알프스 3대 미봉…’ 출간

현직 언론인이자 여행 작가인 조기선 광주CBS 대표가 최근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는 알프스 융프라우 등 3대 미봉(美峰) 트레킹 이야기를 담은 여행기 ‘알프스 3대 미봉 트레킹을 가다’(다큐북스刊)을 펴냈다.

이 여행기는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 명소 융프라우를 비롯해 마터호른, 몽블랑 등 알프스 3대 미봉을 보며 주변을 걷는 트레킹 여정을 다루고 있다. 알프스 3대 미봉은 트레킹 또는 유럽 여행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또는 버킷 리스트에 올라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저자는 이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본 대자연의 웅장함, 신비로움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9박 10일간 매력적인 3대 미봉 주변 스위스와 프랑스 등의 트레킹 루트를 걸으며 보고 듣고 느낀 감동을 고스란히 여행기에 담았다. 트레커들이 알아야 할 알프스와 관련된 깨알같은 팁도 담았다. 특별히 이 여행기는 돈을 들여서라도 가보고 싶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쉽게 가기 힘든 알프스의 눈썰미 풍경, 수천 년 된 빙하, 호수에 비친 그 봉들의 드라마틱한 풍경을 예쁘게 담은 사진이 실려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다.

이 여행기는 저자가 지난 2023년 트레킹을 다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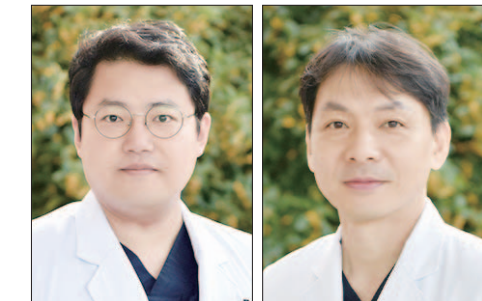


와서 썼다. 현직 언론사 대표로 일하는 바쁜 생활로 출간이 늦었지만 한번쯤은 원어볼만한 소중한 여행기로 읽힌다.

온라인에 온갖 화려한 영상과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본인이 직접 걷고 느끼며 몸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점이 의미있다는 평이다. 현직 언론인인 저자의 시선으로 본 글을 읽는 맛도 쏠쏠하다.

조기선 대표는 “전문 등산가나 트레커는 아니지만 알프스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알프스 3대 미봉을 동경하는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김현종 교수

배우균 교수

박셀바이오, KSMO 젊은 연구자상

배우균 교수, NK세포 간암 연구성과

박셀바이오의 NK세포 기반 간암 면역치료 연구가 국제 학술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셀바이오는 배우균 의학본부장(화산전남대학교 교병원 중앙내과 교수)이 김현종 화산전남대학교 병원 중앙내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 수행한 연구가 대한중앙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KSMO 2026)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김현종 교수가 제1저자, 배우균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중앙미세환경을 재구성해 간세포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NK세포의 역할’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NK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기능뿐 아니라 중앙미세환경을 면역 활성 상태로 변화시켜 면역항암제인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